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5 권 26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p>예수 성심성월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p>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p> <p>◎ 아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p>성소를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p>◎ 아멘.</p>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6/28	유 요한	김 헬레나	성인복사
7/5	이 클라라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7/12	이 마틸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7/19	유 요한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6/21	\$	\$	\$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예비자를 위한 기도

현재 한인공동체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8 시에 예비자 교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신자들이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실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이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잊지 못할 사형수, 최월갑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가톨릭시보사 사장 신부님으로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최월갑이란 사형수는 살인강도죄를 짓고 사형선고를 받은 젊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는 개신교 신자였는데 천주교로 개종하고 싶다고 해서 추기경님께서 미사도 드려주시고 수녀님께 부탁하여 교리도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례를 받기 직전에 사형대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께서는 그에게 급하게 조건부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는 매우 평화로웠고 오히려 밝은 햇살을 맞으러 나갈 추기경님께서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천주교 교지에 묻히게 해 달라는 유언과 함께 사형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쿵'하는 소리가 났고 주위는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간수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추기경님 옆에 있던 소장에게 뛰어왔습니다.

"소장님, 월갑이, 월갑이가..."

"왜 그래. 무슨 일인가?" "월갑이가 저 밑에서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무슨 똥딴지같은 얘기가. 죽은 사람이 웃고있다니?"

추기경님과 소장이 현장에 가 보니 그는 정말로 밧줄을 목에 걸고 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낮은 교수대가 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아래로 함께 떨어진 것입니다. 소장은 즉시 '사형집행 계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기경님은 두 번씩이나 교수대에 서야하는 상황이 애처로워 어쩔 줄 몰라 그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사형대를 고치는 것을 태연스레 보고 있던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지금 죽는 것이 제게는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제 말을 이해하실거예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제가 반시간쯤 후면 천당에 가 있겠네요."라며 추기경님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편안하게 떠났습니다.

공동체 소식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6월동안 주일미사 시작 5분 전에 '예수 성심 성월 기도문'을 바칠 예정입니다.

6월 친교를 위한 저녁모임: 6/28 (주일) 저녁 5시

주임신부님과 함께하는, 6월 친교를 위한 저녁식사 모임은 6월 29일(주일) 저녁 5시입니다.

7월 성체조배: 7/2 (목)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는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 '6시 저녁미사' 이 후에 있습니다.

7월 소공동체 구역모임: 7/19 (주일) '오전 8시 주일미사 후'

7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7월 19일(주일)오전미사 후에 있습니다.

'신부님 영명축일' 행사: 7/26 (주일) 오후 5시

7월 친교의 날(매월 넷째주일)에, 주임신부님이신 전 요아킴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당 친교실에서 바베큐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축하와 친교의 자리인 이 모임에,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반: 화요일 저녁 7시

현재 예비자 교리반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예비자 교리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평협 임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베이크스필드 한인 합창단

베이크스필드 한인 합창단을 전 요아킴 신부님께서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또한 전교를 위해, 더욱더 많은 한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부탁드립니다.

신비한 샘물

어떤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 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과 살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너무 신경질적이고 잔소리가 심해요."

의사는 한참 고민하다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리 병원 옆에 신비한 샘이 있습니다. 샘물을 한 통 길어서 집으로 가져가세요. 남편이 귀가하면 샘물을 한 모금 머금으세요. 그런데 머금기만 해야지 절대 삼키거나 뱉으면 안 됩니다. 처방대로 하시면 금방 효과가 있을 겁니다."

부인은 처방대로 샘물을 길어서 돌아갔습니다. 그 날도 밤늦게 귀가한 남편은 평소처럼 짜증과 잔소리를 아내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인도 맞받아쳐 싸웠을 테지만 그 날은 처방대로 신비한 물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입도 꼭 다물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남편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날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 후 남편이 잔소리를 시작하면 부인은 어김없이 신비의 샘물을 입에 머금었고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남편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경질이 줄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던 행동도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신비한 효과에 깜짝 놀란 아내가 의사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신비한 샘물이 너무 좋더군요. 우리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사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변한 것은 물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 덕분입니다."

<대구주보에서>